

## 제1부

# 문화 간 행동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1장에서 제시한 문화심리학의 목표, 구상, 방법에 대한 초기 지식과 더불어, 이 책의 첫 부분은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문화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장의 배경이 되는 자료들은 독자에게 제1부에 기술된 연구들에 대한 이해 기반과 비판적 평가를 제공할 것이다. 이 장의 순서는 유아기와 아동기의 인간 발달에 대한 기술로 시작하여 성인기와 이후 연령으로 이어진다. 이후 6개의 장은 사회행동, 성격, 인지, 정서, 언어와 지각에 관한 수십 년에 걸친 연구의 핵심적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주제를 통해 인간 행동의 표현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 언급한 온건적 보편주의의 관점을 유지하며, 행동의 발달과 표현에서의 문화적 차이를 찾고, 그 기저에 있는 심리적 과정의 잠재적 공통점을 찾아본다.



# 2

## 개인 발달 :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

### 학습내용

- 발달 맥락으로서의 문화
- 전파 양식
  - 문화적응과 사회화
  - 문화에 따른 젠더의 차이
  - 부모의 양육 이론
-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
  - 유아 발달의 문화 차이
- 애착유형
- 초기 사회인지
- 결론
- 주요 용어
- 추천 문헌

발달 개념은 이 책에서 세 수준으로 다룬다. 첫째, 계통발생적 발달이다. 여기에선 종의 다양성과 오랜 기간에 걸친 새로운 종의 출현을 다룬다. 이러한 발달의 형태는 제11장에서 다룰 것이다. 둘째, ‘발달’ 용어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발달을 제10장(문화적 진화의 인류학적 전통에 대해 논의)과, 제18장(국가적 발달에 초점)에서 다룰 것이다. 이 장과 다음 장에서는 주로 개인의 생애에 걸친 발달 과정 또는 **개체발생적 발달**(ontogenetic development)을 고찰한다. 이 장에서는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의 발달 유형에서의 문화적 유사성과 상이성에 초점을 두고 다음 장에서는 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다룬다.

## 발달 맥락으로서의 문화

개인의 발달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환경 영향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전’과 ‘환경’의 분리가 구시대적 구분법이라 여겨지기는 하지만(제11장과 제12장 마지막 절 참조), 행동의 생물학적, 문화적(환경적-경험적) 요소의 상대적 중요성은 심리학 문헌에서 개체발생적 발달에 대한 다양한 학파 간 차이를 만든 주요 차원이 되었다. 이를테면 생물학적 요인에 더 중점을 둔 성숙 이론이 있고(예 : Gesell, 1940),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학습 이론(예 : Skinner, 1957)은 환경의 역할을 강조한다. 다른 이론들은 좀 더 유기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주목하였는데, 한 가지 예는 인지발달 단계를 구분한 Piaget(1970a)의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개체발생적 발달은 개인이 성장하는 문화 환경의 차이에 대한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경로를 따른다고 보는 이론도 있다(Vygotsky, 1978).

성숙과 학습 이론은 문화 요인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성숙 이론에서 발달은 어느 정도 고정된 생물학적 프로그램의 실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학습 이론에서는 환경은 매우 중요하지만 기계적인 형태이다. 즉, 성인 유기체는 일정 부분 학습된 경험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학습의 기계적 개념은 환경을 개별적이고 균일한 자극의 누적이라 보는데, 이는 학습 경험의 문화적 조직화를 강조하는 문화정보적 학습의 개념과는 대조적인 관점이다. 이 절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문화에 의해 전수되는 개체발생적 발달의 개념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한다.

우리는 상이한 **문화 전달**(cultural transmission) 경로를 통해 규범, 신념, 읽기와 쓰기를 학습한다(다음 절 참조). 이렇게 환경적으로 정보 계승에 기초하는 것의 유익한 측면은 문화적으로 조절된 환경 그 자체이다(물질문화)(Odling-Smee, Lalan & Feldman, 2003 참조). 이 견해에 따르면, 인간 문화의 중요한 관점은 우리를 둘러싼 물질문화유물(자동차, 주택, 컴퓨터, 책, 휴대전화, 아이팟 등)의 수집이다. 문화는 우리가 명확히 사회적으로 학습한 것뿐 아니라 종종 이전 세대에 의해 발명된 문화유물을 사용함으로써 간단히 구성되기도 한다.

몇몇 발달심리학자들은 특히 물질화된 문화 지식에 초점을 둔다(맥락주의자). 맥락주의자는 발달을 개인과 그의 일상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본다. 이 접근법은 문화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둔 Vygotsky(1978)의 사회문화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아마도 Vygotsky 이론보다 문화의 역할을 더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다룬 발달이론은 없을 것이다(제6장의 맥락화된 인지)(Segall et al., 1999 참조). Vygotsky는 또한 계통 발생적 발달이 아동의 발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Bjorklund & Pellegrini, 2002). 이것은 현대 연구자들(Schaffer & Kipp, 2007 참조)

에 의해 가장 주목받는 사회문화적(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가치, 규범, 기술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한) 관점이다. 그는 인간 행동의 전형적인 측면에 대해,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사회적 수준에서 역사의 과정과 또한 개인적 수준에서 개체발생적인 면에 큰 중점을 두었다. 그는 아동 발달을 아동이 점차 지식을 습득하고 좀 더 유능한 사회 구성원과의 협조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행동방식을 배우는, 사회적으로 매개된 활동으로 보았다. 이것은 당초 개인 간의 과정이었던 것을 개인 내적 과정으로 만드는, 즉 외적 조작의 내적 재구성이다.

“아동의 문화적 발달에서 모든 기능은 두 가지이다. 먼저 사회적 수준이고, 후에 개인의 수준이다. 첫째 사람 간(상호심리적) 그리고 아동의 내부(심리 내적)이다. ... 모든 상위 기능은 개인 간 실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Vygotsky, 1978, p.57). 이 인용은 개인의 정신 기능이 사회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개인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이미 있었던 상위 정신 기능을 단지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 외에서 Vygotsky의 생각을 수용한 첫 발달 이론가는 Bronfenbrenner(1979)이다. 그의 생태체계 이론에서는 발달의 맥락을 러시아 인형처럼 각각 다음의 것을 포함하는 중첩된 구조로 정의했다. 발달 중에 있는 아동은 이러한 즉각적 환경부터 넓은 문화에 이르는 네 가지 공간에 싸여 있다. 대부분의 유아에게 가장 안쪽의 맥락은 마이크로시스템인 가족, 즉 어머니, 아버지, 형제이다. 메조시스템은 마이크로시스템인 가족과 기타 학교, 이웃, 어린이집과 같은 서로 연관된 마이크로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엑소시스템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같이 메조 및 마이크로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좀 더 먼 맥락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매크로시스템은 문화규범, 사회화 목표와 가치관으로 구성된 생태계의 가장 먼 층이다. 이들 층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Bronfenbrenner의 발달에 대한 견해는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상, 자연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생각은 바로 맥락화된 인지학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Cole, 1996). 인지학자들은 다수의 연구에서 전문적 지식이 환경적 요구와 관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왜 어떤 사람들은 Piaget(1970a)가 구분한 발달의 가장 높은 단계인 형식적 조작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지를 답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문화적으로 매개’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문화의 매개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여겨진다(예 : Luria, 1971, 1976). 그 이유는 신념, 가치, 지적 도구는 문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Vigotsky는 이 새로운 인지 기술은 종종 보편적이라기보다는 문화특수적이라 믿었다. 이후 글을 아는 사람과 문맹의 차이는 실제로는 Luria의 생각처럼(Scribner, 1979; Segall et al., 1999 참조) 크지 않다는 것이 알려졌다

(예 : Cole, 1996). 이전의 많은 저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Cole(1992a, 1996)은 문화 매개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생물학적 유기체와 환경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세 번째 매개요인, 즉 문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Cole(1992a)은 도시화한 표현에서 고전적으로 유기체와 환경을 구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똑같이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문화도 구분하였다. Cole에 있어 발달은 다양한 수준 또는 시간 척도를 지닌 개념이다: 물리적 척도, 계통발생적 척도, 문화역사적 척도(사회적 전통이 발생하고 사라지는), 개체발생적 척도, 그리고 미세발생적 척도이다. 마지막 것은 인간 경험의 현시점을 수반한다. 이러한 다양한 수준 간의 상호작용은 개체발생적 발달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이 관점에서 개체발생적 발달의 단계는 개별적 아동에서가 아니라 시간에 걸친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나타난다. 이에 관한 한 가지 예는 Cole(1996)의 연구로, 읽고 말하는 풍부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있는 환경에서 아동들이 어떻게 컴퓨터 기반 활동의 인지 기술을 습득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Engeström, 2005).

맥락주의적 접근방식에 따르면, 각각의 문화는 아이들에게 사고와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공한다. Vygotsky(1978)가 ‘지적 적응의 도구’라 부른 이 방법은 아이들이 그 사회의 좀 더 유능한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는 동안 내재화된다. 아동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화적으로 중요한 과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소위 ‘인접 발달 영역’에서 유능한 전문가는 아동을 새로운 이해 수준으로 인도한다. 이러한 종류의 아동 활동의 지지적 가이드를 설명하기 위해 ‘발판(scaffolding)’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Wood, Bruner and Ross, 1976). 여러 문화권에서는 아동은 학교에 다니는 형식적 교육을 통해 습득하지 않고, 좀 더 숙련된 파트너와 함께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일상의 체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아동의 인지가 형성되는, 안내된 참여, 즉 비공식적인 ‘사고의 도제방식’(Rogoff, 1990, 2003)을 취한다(Rogoff, Mistry, Göncü & Mosier, 1993). Rogoff의 연구 결과는 발달에 하나의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그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다양한 요구에 따라 상이한 종류의 유도된 참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 학교와 같이 제도화된 교육 환경을 통해 공식적 가르침을 받는 문화의 아동은 읽기와 쓰기와 같은 주로 언어적 설명을 통해 추상적 문화 능력과 기술을 습득한다. 맥락 독립적 지식은 좀 더 유연한 기술 사용을 허락한다. 농업 또는 산업화 이전 문화권의 아동은 일상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학습한다. 그들은 성인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특정 과업을 배운다. 아동들은 더 나은 관찰 기술을 발달시키고, 여러 모로 현대의 중산층 지역사회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더 역량이 있다(Rogoff, et al., 1993).

Vygotsky가 주장한 문화적으로 매개된 인지 능력과 직접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기억 과제에 흥미로운 문화적 차이가 있다(제6장의 맥락화된 인지 부분 참조). 구전 지식에 의존

하는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은 구두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미국의 청소년보다 더 잘 기억한다는 것이다(Rogoff, 1990). 서구의 아동은 비산업화된 사회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에 비해 맥락 독립적 암기 기억과 목록 학습에 우월하고(Cole & Scribner, 1977), 호주의 학교교육을 받지 않는 원주민 아동은 백인 호주 아동보다 사물 위치의 기억이 우수하다(Kearins, 1981). 물이나 사냥감을 찾거나, 사막을 거쳐 집으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기억하는 것은 호주의 오지에서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실생활에서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학습하는 능력은 생사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다. 당신의 생존이 환경의 주요 특성의 학습에 달려 있다면, 당신을 그것을 신속히 배울 것이다. 서구 아동의 ‘게으름’은 단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책이나 컴퓨터에 기록될 수 있다는 사치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Dunbar, 1996; Stroup, 1985).

비교문화심리학자, 특히 문화심리학 학파의 학자들은 Vygotsky의 유도된 참여 아이디어는 아동의 학습에서 일어나는 핵심이라는 의견을 보인다. 다른 인지 접근에서 아동은 스스로 발견의 행위를 수행하는 어느 정도 고립된 개인이라 여기는 것과 대조적으로, 아동 학습의 맥락적 관점은 사회적으로 매개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좀 더 포괄적 관점이다. 사회 학습은 아동을 더욱 동기화하므로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 아동들이 함께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학생에게 설명함으로써 더 잘 학습하고 이따금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는 해법을 발달시키기도 한다. 아동을 성인의 일상 활동에 통합시키는 비공식적 견습 개념은 학습이 곧 관찰인 농업,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이다. 다른 한편 현대사회의 아동은 가르치는 해법이나 전략을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학습한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것은 학습을 위한 학습으로 보일 수 있고 동기를 감소시킨다(Bernhard, 1988). 현대적 학교교육의 개선에 대한 직접적 함의점은 공식적 교육 맥락에서 언어설명은 감소시키고 좀 더 또래와의 협조와 교사의 적극적 참여를 연계하는 일일 것이다(Rogoff, 2003; Schaffer & Kipp, 2007).

폭넓은 맥락의 중요성은 특히 토착심리학을 권장하는 대다수 국가의 저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sup>1</sup>(제1장 ‘해석적 입장들’ 참조). 예를 들어 Nsamenang(1992)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사회 역사를 조형한 요인들을 기록한다. 그는 식민지 역사가 아프리카의 전통과 종교적 관행을 추락시킨 것을 언급하지만, 또한 아동 양육, 아동의 역할 및 의무를 조형한 여러 신념과 관습의 연속을 지적하고 있다. Nsamenang은 발달 단계의 개념은 현재의 생애에 국한되지 않고 조상의 영적인 영역으로 확장된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심리적 실재는

<sup>1</sup> 우리는 넓은 이분법을 사용하기 꺼리지만, 더 나은 구분법이 없으므로 Kağıtçıbaşı(2007)의 비서구적 세계의 방법을 따른다.

세계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힌두교(Saraswathi, 1999)에서도 눈에 띈다. 대부분의 세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빈곤과 전쟁 같은 사회적 혼란의 조건에서 성장한다(Aptekar & Stöcklin, 1997). Nsamenang(1992, Nsamenang & Lo-Oh, 2010), Zimba(2002)와 & Sinha(1997) 등의 저자들은 발달 맥락의 일상적인 현실과 그것이 아이들에게 초래하는 결과를 중시하는 심리학을 요구한다. 이 결과는 사회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성장 및 인지장애로 이끈다. 예를 들어 Griesel, Richter와 Belciug(1990)는 EEG 특성을 평가한 결과 남아 프리카의 영양 상태가 나쁜 아동들과 정상적으로 성장한 아동들의 뇌 성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격차는 6~8세에 이미 존재하며 이보다 나이가 많은 아동에게서는 더 증가한다. 이 집단의 아이들의 인지 수행 측정에서도 상응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발달 동지**(developmental niche) 개념(Super & Harkness, 1986)은 모든 발달은 특정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난다고 강조한다. 유사하게 널리 병행하여 사용되는 ‘생태학적 동지’ 개념은 특정 종에 의해 사용되는 서식지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그림 1.1의 생태문화적 틀과 명확히 관련된다. Super와 Harkness(1997, 출판 중)가 확장시킨 것처럼 발달 동지는 아동 발달이 다음과 같은 세 유형의 문화적 환경과 연관된 체계이다. 물리적이고 사회적 환경(예 : 사람과 사회의 상호작용, 일상의 위협과 기회), 아동 양육의 지배적 관습(예 : 문화적 규범, 관행과 제도), 양육자의 심리학(예 : 신념, 가치, 정서적 지향과 부모의 관행)[다음 절의 **부모의 양육 이론**(parental ethnotheories)<sup>2</sup> 참조]이다. 이 세 시스템은 발달하는 아동을 에워싸고 발달을 촉진하고 육성하고 강제한다. 이들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더 큰 생태계에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함께 조정하여 일관된 동지를 제공하며, 또한 그들이 서로 결합되지 않으면 아동에게 불일치를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과 각 하위 시스템은 서로 적응(상호작용)하여 아동이 각 하위 시스템에 영향을 주기도, 반대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정리하자면, 인류학 및 심리학은 가족과 같은 보존 시스템에 대해 환경 조건과 자원에 의존적이라고 보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Berry, 1976; Munroe & Gauvain, 2009; Whiting, 1963; 제10장 ‘문화의 개념’ 중 여섯 번째 문화 정의 참조, 그리고 문화적 진화는 변화하는 맥락에의 적응에 기인한다는 논의 참조). 추가적으로, 문화마다 인간 발달에 대해 맥락적 관점을 취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Keller, 2007; Super & Harkness, 1986).

<sup>2</sup> Harkness, Super, Bermúdez, Moscardino, Rha, Mavridis, Bonichini, Huitrón, Welles-Nyström, Palacios, Hyun, Soriano와 Pylicz(2009)의 연구에서 parental ethnotheories의 개념이 처음 소개되었으며 부모들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직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연구에 의하면 이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역자주)

## 전파 양식

인간처럼 문화집단도 스스로 재생산한다. 이들 모두 생물학적·문화적 전파를 요구한다. 문화 전파의 개념(그림 2.1)은 Cavalli-Sforza와 Feldman(1981)에 의해 **생물학적 전파**(biological transmission)의 의미와 비슷하게 사용되었는데, 인구의 특정 기능은 유전적 기제를 통해 세대에 걸쳐 영구화된다는 것이다(Schönpflug, 2009). 생물학적 전달은 제11장에서 논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전파의 주요 생물학적 기능, 즉 수태되는 순간 중 특유의 유전적 물질이 양쪽 부모로부터 개인에게 전달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문화집단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 전파를 사용하여 교육과 학습 메커니즘을 포함시킴으로써 세대 간 행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Cavalli-Sforza와 Feldman은 부모에서 자손으로 이어지는 문화 전파를 수직적 전파라 칭했는데 이는 하나의 문화 특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수직으로 내려가기는 오로지 생물학적 전파의 형태로만 가능하지만, 문화 전파는 다른 두 형태가 있다: 수평적 전파(또래로부터)와 사선 전파(사회 안의 부모 세대인 타인으로부터). 이런 형태의 전파는 자신의 문화집단 내부에서, 그리고 다른 문화집단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 이 구분은 그림 2.1에 표시하였다. 이 세 형태의 문화 전파는 두 과정을 거치는데 문화화와 사회화이다(다음 절 참조). 문화화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문화적 맥락 속에 ‘안겨짐’으로써 이루어지며 문화에 적합한 행동들을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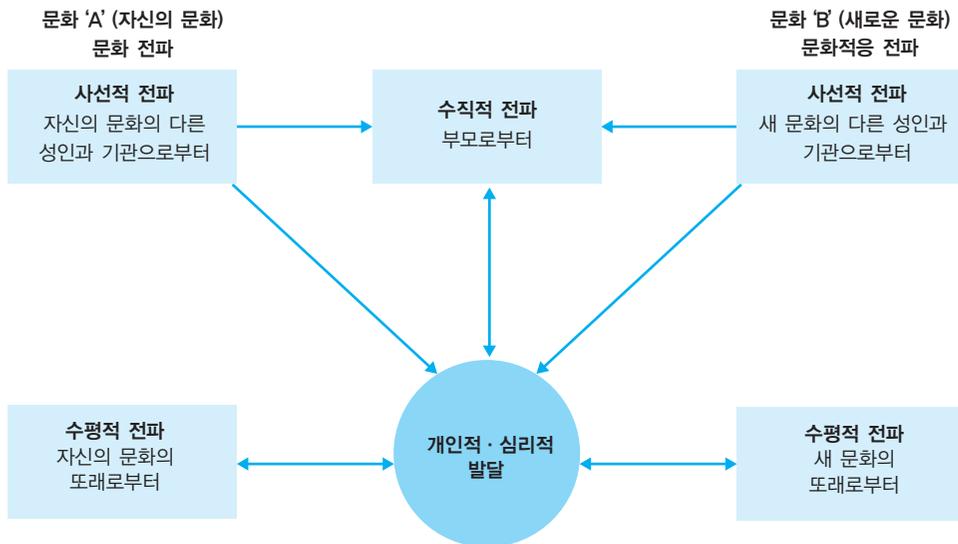


그림 2.1 수직적, 수평적, 사선 형태의 문화 전파와 문화화(Berry & Cavalli-Sforza, 1986에서 수정)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이끈다. 사회화는 보다 구체적인 지식과 훈련을 통해 문화에 적합한 행동을 취득하도록 한다.

수직적 전파에서 부모들은 문화적 가치, 기술, 신념 등을 자손에게 전파한다. 이 경우 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실상 문화적 전파와 생물학적 전파를 구분하기 어렵다. 즉, 아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고, 따라서 생물학적 부모와 문화적 부모는 흔히 동일 인물이다. 수평적 문화 전달에서는 사람은 출생부터 성인에 이르는 동안 또래로부터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다. 이 경우 생물학적 전파와 문화적 전파 사이에 혼란이 없다. 사선적 문화 전파에서는 사람은 자신의 문화나 다른 문화의 성인이나 기관(예 : 공식적 학교교육, 소셜 클럽)에서 학습한다. 이 과정이 전적으로 한 사람의 고유 문화 또는 일차적 문화(primary culture) 내에서 일어난다면, 문화 전파는 적절한 용어이다(그림 2.1 좌측). 이 형태의 전파는 환경 문화적 틀의 과정 요인으로 보인다(그림 1.1). 이 과정이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서 유래한다면, 문화적 동화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그림 2.1 우측). 후자의 용어는 한 개인에 의해 경험된 전파의 형태를 말하며, 이는 자기 고유의 것이 아닌 그 문화에 속한 사람이나 기관과의 접촉이나 영향을 통해 주어진다(그림 1.1 생태문화적 체계의 아랫줄 참조). 이는 후차적 또는 이차적 문화화와 사회화이다(제13장 문화변용 개념의 개요 참조). 그림 2.1에 화살표로 표시한 이러한 형태의 전파는 그 틀 안에서 발달 중인 개인, 타인, 집단에게 흐른다. 이들의 상호적 영향은 특히 또래 간에 중요하지만, 또한 부모-자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Lamb, 1986). 이처럼 상호작용과 상호 영향을 나타내는 양방향 화살표는 문화 전파와 문화적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표시하고 있다.

## 문화적응과 사회화

이전 절에서는 문화 전파의 두 과정인 **문화적응(enculturation)**과 **사회화(socialization)**(Berry, 2007a)를 구분하였다. 문화적응의 개념은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전개된 것으로 Herskovits(1948)에 의해 처음 정의되고 사용되었다. 용어가 말해주듯 개인은 문화에 의해 포함되고 에워싸여 있다. 개인은 학습을 통해 문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습득한다. 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의도하거나 교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종종 특별한 교육이 없는 학습도 있다. 문화적응의 과정은 부모, 다른 성인, 또래를 포괄하고, 영향(수직적, 사선적, 수평적)의 네트워크에서 모두 개인의 발달을 제한하거나 조형하고 지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대부분 언어, 관습, 가치 등을 포함하여 그 문화에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사회화의 개념은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의 분야에서 나온 것으로 감독하에 개인을 의도

적으로 조형하는 과정을 말한다(Berry, 2007a; Munroe & Gauvain, 2009 참조). 이것은 일반적으로 문화심리학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문화 전파가 자신의 집단 내에서 의도한 교육을 포함할 때 우리는 생애 초기 사회화 과정을 다루는 것이다. 재사회화는 의도한 영향이 삶에 늦게 또는 자기 문화 밖에서 올 때 발생한다. 문화적응과 사회화 모두의 최종 결과는 문화 내 행동의 유사성과 문화 간 행동 차이의 발달이다. 이들은 이렇게 능력과 성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분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문화적 메커니즘인 것이다. 문화적응과 사회화 과정은 더 큰 생태학적·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난다. 전파의 형태와 내용은 일반적으로 주변 문화 환경에 적응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이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데 필요한 행동 목록을 습득하는 데 기능적이다. 문화 전파가 환경문화적 틀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이러한 이유이다(그림 1.1). 아동이 스스로 존속할 만큼 발달한 이후에도 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과 다른 사회집단 속에 살고, 그들 문화의 중요한 기능을 습득하기를 계속한다.

다른 한편, 문화 전파의 과정은 반드시 정확한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확한 전파의 사이(거의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런 차이 없이) 어딘가에서 누락되기도 하고, 전파가 완벽히 실패하기도 한다(부모나 문화와는 다른 후손). 일반적으로 이 스펙트럼 전체에서 비전파의 극단보다는 전파의 극단 쪽에 가깝다. 기능적으로 사회에는 양 극단이 모두 문제가 될 것이다. 정확한 전파는 새로움과 변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허용하지 않으며, 반면 전파의 실패는 세대 간 조율된 행위를 허용치 않게 된다(Boyd & Richerson, 1985, 2005). 개체발생적 발달과 사회 변화 사이의 관계는 제3장의 ‘성인기 중기 : 양육과 가족’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룬다.

특정 사회에서 부모가 어떻게 특징적으로 자녀를 키우는가에 대한 연구는 한 세기가 넘도록 문헌에 보고되고 있다. 제10장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보고서의 대부분은 주로 인간관계지역 파일(the Human Relations Area Files, HRAF)로 알려진 민족지적 보고서로 구성된 아카이브에 축적되어 있다. 문화 전파를 연구하는 한 방법은 세계의 문화 전파 요인의 차이에 대한 주요 차원을 발견하기 위해 이러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광범위한 개관을 제공하고 또한 아카이브에 포함된 다른 생태적·문화적 요인의 맥락에서의 문화 전파의 조사를 가능케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화와 사회화가 어떻게 다른 집단의 상황에 맞게 적응되는지 조사할 수 있다.

민족지 아카이브를 사용한 문화 전파의 연구는 전 세계 문화 자료의 검토를 허용하기 때문에 완전문화적(holocultural)이라 한다(Munroe & Gauvain, 2009). Whiting과 Child(1953)에 의해 수행된 유명한 초기 연구는 사회가 전형적으로 질병을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성인의 성격과 **아동 훈련**(child training)을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75개 사

회의 민족지 자료가 HRAF로부터 유추되었고, 다섯 가지 ‘행동체계’, 즉 구강, 항문, 성적, 의존성, 공격(‘공통된 추동에 의해 동기화된 관습 또는 습관이며 공통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정의)(Whiting & Child, 1953, p.45)이 검토되었다. 이 다섯 행동 시스템의 첫 세 가지는 Freud(1938)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에서 유래되었는데, 성적 만족은 발달 과정을 통해 구강기 동안 입부터 시작하여 다른 성적 영역들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판단자는 세 차원, 즉 아동의 초기 만족 또는 탐닉, 사회화의 연령, 그리고 사회화의 엄격성에서 평가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2개의 매우 일반적인 결론이 주어졌는데, 첫째, “아동 교육은 전 세계에 걸쳐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다. … 특정의 보편적인 행동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발견된다”(Whiting & Child, 1953, p.63). 둘째, “아동 교육은 사회마다 다르다”(Whiting & Child, 1953, p.64). 이 2개의 결론에 문화심리학의 두 원형적이고 매우 흔한 경험적 결과가 반영된다. 이는 모든 문화에 걸친 공통 패턴을 암시하는 여러 결과와 일치한다(예 : Lonner, 1980, 출판 중). 첫째, 인류를 서로 연결하는 데 기여하는 몇 가지 공통 차원(문화 보편)이 있다. 둘째, 개인과 집단은 이 세 차원의 전형적 장소가 서로 다르다. 우리는 이후에(제11장과 제12장) 문화 비교를 위한 몇 가지 타당한 기준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결론이 필수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적, 심리적 관찰이 이론적인 해석이 가능한 방식으로 연관된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자료에 충분한 변산성이 있으려면 두 번째 결론이 중요하다.

다른 고전적 연구에서 Barry와 동료들(Barry, Bacon & Child, 1957; Barry, Child & Bacon, 1959)은 (1) 아동 교육의 공통 차원을 찾고, (2) 각 사회는 이 차원들의 상이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3) 남아와 여아의 교육에서 약간의 특성 차이를 보이며, (4) 환경적, 문화적 차이(경제적, 사회적 구조와 같은)의 모든 특징들이 서로 연관되는 등 사회화는 넓은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 이들의 분석은 자녀 양육의 상이한 영역이 2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나의 클러스터(‘동조’의 압력)는 책임감과 복종을 위한 훈련과 결부시킨다. 다른 클러스터(‘주장으로의 압력’)는 훈련을 성취, 자립, 독립을 위한 것으로 결부시킨다. 이 두 클러스터는 부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의 위치에 따라, 한 끝에서는 응종 훈련, 다른 끝에는 주장 훈련에 이르는 단일 차원의 형성을 허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초기의 차원들은 단일 차원으로 축소된다. 이 새로운 차원은 이전 연구와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개인적 변산성 범위에 수반되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경험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우리는 젠더 사회화의 실행과 관련한 문화 패턴에 대해 다음 절에서 전문화적 접근을 사용할 것이다(제3장 ‘성인기’ 참조).

## 문화에 따른 젠더의 차이

젠더 차에 대한 문헌에서는 성별(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한다. 성별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낸다면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구상이나 학습된 신념을 나타낸다(Best, 2010). 이 꼬리표들은 별로 유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성에 대한 생물학적, 문화적 영향을 구분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에서의 젠더 차이를 찾는 것은 생물학적, 문화적 요인이 얼마나 복잡하고 거의 구분이 불가능하게 엮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제11장 참조). 이미 태내 환경이 아동의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와 상호작용한다(염색체상의 젠더, xx=여아, xy=남아, 글상자 11.1 참조). 수태 이후 6주경에 y 염색체는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고환 발달을 촉발함으로써 인간 배아의 원천적인 여성적 청사진을 남성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이는 다시 안드로겐이라 불리는 많은 양의 남성 호르몬의 생산을 시작하는데(호르몬 젠더), 이 호르몬의 흡수는 아이의 신경생리학적 조판에 달려 있다. 호르몬 폭풍의 조절은 태내의 호르몬 환경과 함께 일어나는데 어머니의 일반 호르몬 균형에 의존하게 된다. 어머니의 일반적 호르몬 구성은 결국 삶의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예 : 영양 수준, 결혼의 만족 또는 신체적, 심리적 웰빙). 어떤 환경적 자극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는 다시금 어머니의 유전적 조판에 달려 있다. 이것은 후생적 순환이다. 유전자는 어떤 환경 요소가 행동에 영향을 줄지 결정하고, 환경은 언제, 어떤 유전자가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될지 결정한다(제11장 ‘적응’ 참조).

이와 같은 호르몬 과정은 고환이나 자궁과 같은 형태의 표면적으로 가시화된 결과로 이끈다(생식기 젠더). 생식기 젠더는 아이의 문화적 꼬리표(남아 또는 여아)의 시작점이다(사회적 젠더). 이러한 각 단계에서 사회환경이 혼합되기 이전에 예외가 일어날 수 있다(Beh & Diamond, 2000; Diamond, 1997; Imperato-McGinley, Peterson, Gautier & Sturla, 1979). 여아 또는 남아가 되는 발달 과정에 따른 상이한 명칭을 고려할 때 두 가지가 현저해진다. 첫째는 후생적 사건의 긴 사슬 단계가 매우 중요함에도 오직 사회적 꼬리표만이 최종적이다. 둘째, 젠더에 대한 단지 이분법적, 유형적 관점만으로 앞에 언급한 후생적 연속성이 늘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사회화와 행동에서의 젠더 차이의 주제는 비교문화 문헌에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졌는데, Munroe와 Munroe(1975, p.116)는 모든 사회에서 행동의 양식적(modal) 젠더 차이가 있고,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젠더에 의한 분업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두 현상은 보편적이라는 것 외에도 기능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사회화에서 강조하는 젠더 차이와 행동에서의 젠더 차이 간의 부합성은 매우 강력하다. 두 젠더가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모든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선천적 행동 경향성을 관

찰하였고 그리고 난 후 그들의 사회화 실천이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에 기초한 경향성을 강조하거나 감소하도록 만든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이끌어낸다.

이전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Barry 등(1959)은 HRAF에 기초한 연구에서 남성의 사회화는 주장을 강조하고, 여성은 순종을 강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행동의 젠더 차이에 관련하여 Barry 등은 남성이 좀 더 자기주장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지배적이고, 여성은 좀 더 사회적으로 반응하고 수동적이며 순종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이 행동의 차이가 (거의 보편적이고 결코 바뀌지 않기는 하지만) 아주 큰 것에서부터 사실상 전무한 수준까지의 범위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차이 방향의 보편성과 차이 크기의 다양성을 둘 다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노동의 분업화와 사회화 실천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게 한다. 이 논지는 초기 인류학적 발견으로부터 비롯되는데(Murdock, 1937) 성별 분업은 보편적(이거나 거의 보편적)이고 내용 면에서도 일관적이다. 예를 들어, 음식 준비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대부분 여성에 의해 행해진다. 아동 양육은 일반적으로 여성의 책무이다. 이따금 공유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주요 책임이 남성에게 맡겨진 사회는 없다. 이 차이는 생물학적으로 기초한 차이, 특히 여성의 전체적으로 낮은 신체적 힘과 아이 분만과 양육 기능으로부터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제3장 '성인기' 참조). 남성과 여성의 상이한 경제적 역할, 이를테면 여성이 거의 집 근처의 활동을 맡는 형태는 기능적인 반응이다. 두 번째 주장은 상이한 사회화는 아동으로 하여금 성 관련한 성인의 역할을 준비시키는 목적으로 진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행동의 차이는 상이한 사회화 강조의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 다시금 상이한 성인 활동에 대한 반성적이고 적절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Barry et al., 1959).

Berry(1976)의 생태적 모형에 대한 Van Leeuwen(1978)의 확장은 이 주장을 더욱 확대하여 생존 유형의 다른 면, 그리고 행동의 성차를 수용하게 해준다. 한곳에 정착해 사는 높은 식량 축적 사회에서 여성은 양육적이고 순종적이 되게끔 더 많은 훈련을 실행할 뿐만 아니라 성별 간 훈련 차이 정도도 많아진다. 수렵과 채집을 주로 하는 낮은 식량 축적의 사회에서는 성별에 의한 노동 분업이 적고, 어느 성이든 순종적이도록 훈련해야 하는 필요도 적다. 이러한 사회에서는(곧 보게 될 테지만 적어도 수렵이 아닌 채집 사회에서는) 여성의 기초 생계 활동에의 기여는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은 남성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고, 여성을 폄하하거나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 없다.

문화에 따라 노동 분업이 일어나는 방식은 여성이 기초생활에 기여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Schlegel & Barry, 1986). 그러한 활동에의 참여는 활동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다. 예를 들어 식량을 채집에 의존하면 여성의 참여는 일반적으로 높다. 민속지적 보고에 입

력된 바로는 14개 채집사회 중 열한 곳(79%)은 여성이 높은 기여자이다. 반면 16개 수렵 사회 중 단 두 곳(13%)만이 여성이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주요 활동이 채집이거나 농사인 경우(집약적인 농업 문화와 달리) 여성은 상대적으로 생존에 높은 기여를 하기 쉽고, 활동이 축산, 집약적 농업, 어업 또는 사냥인 곳에서는 기여가 적다(Schlegel & Barry, 1986, p.144).

여성의 생계 역할의 다양성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까? Schlegel과 Barry(1986)는 두 종류의 문화 형태(적응적 그리고 태도적 반응)가 여성의 생계 기여와 관련 있음을 발견하였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생계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일부다처제, 족외 결혼제도, 신부 가격 매기기, 산아제한과 여아의 노동 지향적 훈련이 만연하다. 동일 조건(여성의 생계 기여가 높은 조건)에서 여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자유가 허용되고,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적 욕구와 재생산을 위한 대상으로 여겨지는 일이 적다. Low(1989)는 상이한 짝짓기 방식과 관련한 93개 문화 자료의 메타분석에서 젠더 관련한 사회화 실천의 차이가 짝짓기 방식과 함께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부다처제 사회에서는 젠더 차이가 커서 남아에게는 좀 더 공격적이고 용감하고 독립적이고 여아에게는 좀 더 책임감 있고 복종적이고 순진할 것을 기대한다. 이 젠더 차이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힘의 증가와 함께 감소한다. 이러한 대부분의 일부일처 문화에서는 딸은 덜 복종적이고 더욱 공격적이며 야망을 갖도록 기대된다. Low는 이 흥미로운 젠더-문화의 상호작용 유형을 진화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출산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Trivers, 1972). 포유류는 여성의 **부모 투자**(parental investment)가 남성보다 큰데, 투자를 덜 하는 성인 남성은 제한된 자원인 여성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하고 남성의 높은 성별 내 경쟁이 초래된다(제11장 참조). 일부다처의 사회에서 매력적인(사회적인 성공을 의미) 남성은 다수의 부인과 혼인할 수 있지만, 다처를 지닌 남성과 결혼한 모든 여성은 더 이상 다른 남성들에게 제공되지 않으므로 일부다처제 사회의 남성 대다수는 미혼으로 남을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일부다처 사회 남성의 재생산성의 큰 차이는 남성 내 경쟁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미혼으로 머무를 위험이 일부일처 사회보다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남성은 좀 더 공격적이고 주장적이 됨으로써 혼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 쉽다. 일부일처 사회에서는 반면 남성과 여성이 유사한 재생산 전망을 가지는데 이는 Low(1989)에 의하면 그들 부모로부터 좀 더 유사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젠더는 사회화의 결과이자 원인이라는 것이다. 젠더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아니라 또한 그에 영향을 준다(Snow, Jacklin & Maccoby, 1983의 1세 된 남아의 아버지들은 동일 연령인 여아의 아버지들보다 더 금지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이것은 남아가 매혹적인 대상을 더 만지려 들기 때문이라는 예시 참조). 현대